



## 독서로는 깨우칠 수 없는 카리스마의 주인공, 타고난 조직가 ‘첸 아저씨’ 이야기

고지훈 | 한신대 강사·<퍼스웹> 인터뷰어

우린 '국문학 박사 천정환'을 "첸"(혹은 "첸아저씨")이라 부르는데, 웹진 <퍼스웹>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는 이 필명을 사용한다. 천 박사나 천 선생보다는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불러도 좋을 듯싶다.

얼마 전까지 필자는 이런 실없는 소릴 첸에게 종종 했었다.

"야, 근데 니 생각엔 입화가 간첩 맞는 거 같냐? 니 입화 갖고 석사 쓴 거 맞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첸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의 석사논문 제목은 <박태원 소설의 서사기법에 관한 연구>인데, 논문을 쓴 지 7, 8년쯤 지났다. 국문학 전공자들은 한국사 공부를 꽤 하는 편이고 또 연구자체가 역사학에 포함시켜도 될 만한 것들이 많지만, 한국사 전공자들은 그에 비하면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덜한 편이다. 그의 석사논문을 못 읽은 빛(?)도 있고 해서 박사논문은 꼭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한데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자그마치 560쪽이 넘어간다니.

'친구'란 영화 탓에, 성장기를 부산에서 보낸 남자들의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했지만 어떤 점에선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다.

"도대체 남자새끼가 무슨 문학교고? 문학소년? 그 말 그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 하고 비슷한 건가라. 형용모순이라 카는 기지."

첸의 심성이 문학적이라든지, 혹은 그가 훌륭한 문학작품의 창작과 비평에 필요한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적어도 그의 말하는 방식과 생긴 방식(?)이 문학적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부산사투리는 어지간해선 문학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의 사투리도 꽤 심한 편이고 투박하고 역세며 공격적이다. 욕설의 사용빈도도 박사급의 고급지식인들 평균보다 아마 꽤 높을 것이다. 큰 키와 묵직한 덩치, 게다가 어디에 저런 박사다식함이 감춰져 있을까란 의문을 해소시켜 주려는 듯한 상식 밖의(?) 머리 사이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즐겨 입고 다니던 총독부 형사풍의 가죽잠바까지 떠올리면 첸은 영락없는 '소도독놈 스타일'이었다(그래서 그런지 필자는 실수로 첸을 "형"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다). 국문학전공자들에 대한 필자의 선입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때 처음 만났던 첸은 문학소년의 이미지하고는 영 안 어울렸다. 그의 첫 저서 출판기념회 이전에는 한번도 문학전공

자라는 의식을 못했으며, 국문학에 대한 그의 식견을 가늠해 볼 능력도 없다. 하니 '학문 외적인' 요소로 그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국문학의 영역 '밖'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인문학도 답지 않게, 또 공을 차면서 보여주던 평범함(!)과는 달리 아주 현란하다. 필자는 웹진이란 단어를 이 친구에게서 처음 들었다. 그게 1999년이던가? <이디오진크라지>라고 하는 뜻만큼이나 기괴하게 귀에 박혔던 웹진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웹진이 새로 나온 청바지쯤 되는 줄 알았는데, 필자같이 세대의 흐름을 잘 모르던 한국사 전공자들은 대체로 그랬다. 무릇 모든 세상사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 있는 인문학이란 동네에서(사실 인문학은 그래선 안 되는 것이지만), 발빠르게 또 폭넓게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눈총을 받기도 한다. 웹진이란 소릴 들었을 때 나도 그런 눈총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 책만 파고 있을 줄 알았던 그가 남몰래 인터넷 잡지를 운영하는 이유를 잘 몰랐다. 한데 1999년경부터 시작한 그 일이 현재에도 성장-진화중인 '거대한 계획'을 위한 터다지기 작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뒷골이 서늘해진다. 무서븐 놈!

첸의 '거대한 계획'이 뭔지 사실 나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퍼슨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기획사업을 가업화(家業化)하여 2세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또 교수임용을 염두에 둔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간 웹진에 들인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그의 전공으로 돌렸다면 박사논문 두 세 편쯤은 더 쓰고도 남았을 텐데, 자신의 학위논문 출판을 위해 들이는 노력보다는 <퍼슨웹>의 출판을 위한 다른 이의 논문편집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걸 보더라도, 그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이 적어도 내가 아는 '좁은 의미의 국문학'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웹진에서 주로 그가 인터뷰했던 대상들이 그리고 현재 최종 편집작업이 진행중인 단행본이 노동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1980년대로부터 뭔가 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주앉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본 적 없는 필자로서는 그가 무슨 꿈꾸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도 별로 없었다. 단지 서로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계획들이 현재 진행중이며, 첸의 큰 머리 속에 감춰져 있는 계획이 아직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뿐이다.

별다른 금전적 이득도 없고 나의 직업과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를 게임메이커로 삼고 있는 이 '학문의 적' 집단과 활동에 필자 같은 이도 즐거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오로지 그의 품성 덕분이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조직가이다. 말 못하는 이를 말하게 만들고, 글 못쓰는 이를 글 쓰게 만들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쓰고 보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기적처럼 들리는데, 사실이 그렇다. 조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도 혹사당했다는 느낌 대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혁명에 대한 환상이나 스톡옵션 같은 미끼 없이도 그는 잘 해왔다. 웬지 그의 계획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총칼로는 얻을 수 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독서로는 깨우칠 수 없는 이런 카리스마가 첸에게는 있다.

모르긴 해도 첸이 가진 이 매력은 결혼하는 데에도, 또 이혼당하지 않고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그 매력덕분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즐겁게 또 오래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기도 하고. ■



이 글을 쓴 고지훈은 1969년 부산출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고 있고 한신대학교 강사로 있다. 웹진 <퍼슨웹> 인터뷰어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도 하다.